

2. 신석기시대

신석기인들의 생활은 구석기인들의 채집과 사냥에서 농경·목축 등 식량을 생산하는 정착생활로 발전하였다. 땃석기 대신 더 정교하게 날을 세운 간석기(마제석기)가 사용되었고, 또한 처음으로 식량을 저장하고 조리할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신석기혁명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000년경까지 무려 5,000년 이상의 기간이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은 해안가나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발견된다. 이들은 대동강·한강 유역 및 인근 섬지역을 포함한 서해안지역, 낙동강을 포함한 남해안과 그 도서지역, 두만강 유역과 동북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해안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기 다른 빗살무늬토기를 제작·사용하였다.

전남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 유적은 서남해안지역의 조개더미 유적과 내륙지역의 강변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조개더미 유적은 신안 대흑산도·소흑산도(可居島)·하태도·우이도 등 육지와 떨어진 섬지역 그리고 완도 고금도, 신안 지도 여의도, 여천 돌산 송도·금오도·개도·낭도·둔병도·하고도 등 육지 인근 섬지역과 해남 백포리, 광양 오사리 돈탁 등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내륙의 강변 유적은 보성 죽산리와 송광면 대곡리, 황전면 대치리 등 보성강과 섬진강변 충적평지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신석기인들이 전남지역의 섬과 내륙지역에서 살았음을 말해준다.

신석기인은 농경보다는 주로 수렵·어로·채집을 통한 경제생활이 위주가 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은 활과 화살 등 원거리용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사슴·노루·멧돼지·영양·산토끼 등 날쌔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였다. 그리고 조합식 낚싯바늘이나 그물추(漁網錘) 등의 어구류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기잡이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망을 사용하였음을 볼 때 다량의 고기를 잡기 위해 집단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농경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황해도 지탑리 유적에서는 피와 조 등의 탄화 곡물과 함께 농경도구·저장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인근 궁산리 유적에서도 돌괘이, 멧돼지 이빨로 만든 낚 등의 농경도구와 대형 저장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여천 송도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그물추와 갈판 등으로 보아 전남지역의 신석기인들은 고기잡이와 농경을 하였으며, 보성 죽산리에서 출토된 그물추로 보아 내륙지역에서도 고기잡이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주 다시면 가흥리 늪지대에서 발견된 벼화분으로 보아 신석기 말기 영산강 유역에서는 이미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는 움집을 만들어 생활하였다. 움집은 면적 20~30㎡, 깊이 1m 정도의 크기로 둥글거나 네모나게 땅을 파내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 만든 것이다. 움집의 내부에는 음식을 조리하고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화덕과 간단한 저장시설이 있는데, 내부공간은 출입구·화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시맷돌·토기 등 취사용구가 더 안쪽에 있다. 출입구 쪽에는 돌도끼·돌창·화살촉 등 사냥용 도구와 작업도구 등이 분포되어 있어 용도에 따른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움집은 보통 대하천변의 충적대지나 해안의 평탄면에 자리잡고 있고, 수습 채석 마을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천 송도에서 신석기인이 살았던 움집자리가 발견된 바 있다. 생활도구인 석기는 초기에 땃석기 제작기법으로 만든 조잡한 석기가 주로 쓰이다가 후기로 가면서 간석기가 널리 이용되는데, 도끼·화살촉·창·쟁기·원시맷돌·그물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실

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락바퀴는 상당히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었고 동물뼈를 갈아 만든 바늘도 몇몇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실이 바늘귀에 꿰어 있는 채로 발견된 예로 보아 이미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조각품들이 서포항에서 출토된 바 있고, 그외 부산 동삼동, 강원도 오산리 등지에서는 조각품과 장식품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신안 대흑산도·소흑산도·하태도·어의도, 완도 고금도, 해남 백포리 등 서해안지역 조개더미에서만 발견되었으나 1980년대 중엽 이후에는 여천 송도를 비롯하여 광양 오사리(돈탁)·진정리, 송광면 대곡리, 보성 죽산리 등 주로 전남 동부지역 조개더미와 생활유적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 황전면 대치리, 여천시 월내동 지석묘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편이 있다.

① 송광면 대곡리 출토 빗살무늬토기

송광면 대곡리 유적은 보성강변에 형성된 층적평지에 위치해 있는데, 발굴과정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알려진 유적이다. 대곡리 유적 외에도 보성강변에 형성된 유적으로 보성군 죽산리 유적이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은 평행사선문(平行斜線文)·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압인문(押印文) 등이며, 바탕흙은 사질과 점토질이 있으나 대부분 점토질이다. 문양 중에 태선문은 남해안지역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적인 요소이고, 점토질도 남해안지역 신석기 말기 유적의 특징이어서 두 지역에서 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유적이 경남 내륙지역인 산청 강수리 유적과 바탕흙, 문양면에서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해안지역과 그 내륙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② 여천 송도 조개더미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에 있는 송도 조개더미는 섬의 동쪽 사면과 해안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1989년과 1990년 2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이 유적의 층위는 경작층·흑갈색부식혼토포층(유물포함층)·명갈색순토포층(明褐色純貝層)·흑갈색점토층으로 되어 있다. 맨 아래층에서 덧띠토기, 덧줄무늬토기, 복합된 문양구성을 보이는 토기편, 흑요석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형태는 원저 또는 환저 모양의 바닥, 둥근 바닥을 굽혀 만든 돌린굽바닥 등 다양하다. 일부의 토기는 형태와 문양구성에서 서해안 빗살무늬토기의 문양요소가 보이고 있어, 신석기시대 전기의 용기문양토기에서 중기의 빗살무늬토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적 유물임을 알 수 있다. 토기 이외의 골각기·돌도끼·석촉·흑요석제석기·밀개·격지돌날·돌삽 등의 석기류와 조개팔찌, 조합식어구, 토제방추차, 갈판, 갈돌 등이 있다.

이러한 송도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 중엽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의 발굴로 남동해안과 서남해안 조개더미의 신석기문화 전파상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집자리가 2기 확인되었다. 이는 서남해안지역에서 처음 발굴 조사된 유구로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이 주거지는 경사진 지표면 위에 형성된 패각층을 L자로 파고 진흙을 다져 편평한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깊이는 지표에서 최대 50cm에서 최소 10cm 가량이다. 유구의 동쪽은 바닷물의 침식으로 잘려나갔으며 남쪽 일부에 폭 50~60cm, 길이 60~70cm 가량의 함몰된 부분이 있다. 가운데는 깎돌과 냇돌을 돌려 만든 화덕자리가 위치하는데, 조사결과 이 화덕자리의 아래에서 또 다른 바닥을 가진 화덕자리가 발견되어 이중으로 겹쳐진 집자리임이 확인되었

다. 이들 집자리의 구조는 패각층 위에 황갈색 또는 흑갈색 진흙을 깔고 다져 고른 바닥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냇돌을 돌려 화덕을 만든 1차 바닥과, 그 위에 다시 진흙을 깔고 다져서 바닥을 만들고 돌을 돌려 화덕을 만든 2차 바닥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의 화덕이 있으며, 원형 또는 타원형의 바닥평면을 한 원추형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문화는, 빗살무늬토기로 보아 경남 등 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토기 중 덧띠토기는 강원 오산리, 부산 동삼동, 여천 송도, 신안 소흑산도로 이어지는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 유적 중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며, 껍입술토기와 퇴화된 무늬는 늦은 시기의 특징적인 것이다. 전남지역 신석기인들은 여천 송도 조개더미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기원전 4285년과 4270년)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인 6,000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 3,000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개더미 유적은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며 송광면 대곡리, 보성 죽산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내륙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신석기 유물이다.